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

과장 하종목, 경정 이인표
(044-200-2082, 2085)

故 백남기 농민 시인 수정 및 경찰청장 사과 관련 국무총리 특별 지시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서울대병원이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 발표한 것과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이 그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하여 상황 보고 받았다.
 - 이에 총리는 고인에 대해서 다시한번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유족에게도 사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받았을 고통과 상처에 대해 깊은 위로를 표했다.
- 이 총리는 경찰의 본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·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강조하면서
 - 모든 경찰관은 항상 이러한 본분을 기억하며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특히 범죄를 예방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면서
 -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인권경찰로 거듭나 주기를 당부하였다.
- 이 총리는 앞서 전남도지사 시절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를 조문하고 광화문 영결식과 광주 노제에 참석하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.